

**NEAR사무국, 고교생 대상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 운영(1.6)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2021.01.06.(수)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중도일보	동북아연합, 고교생 대상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 운영	
2	신문	대경일보	동북아연합, 사무국 체험·연수과정 운영	
3	온라인	프레시안	동북아연합사무국, 포항 고교생 대상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 모집	
4	온라인	CBN뉴스	동북아연합(NEAR)사무국, 고교생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 개설 운영	
5	온라인	위클리서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고교생 체험·연수 운영	
6	온라인	경북다경뉴스	포항시 동북아연합(NEAR)사무국, 고교생 대상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 운영 예정	
7	온라인	더팩트	NEAR사무국, 포항 고교생 대상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 운영	
8	통신사	열린뉴스통신	동북아연합 사무국, 고교생 대상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 운영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都日報 joongdo.co.kr

동북아연합, 고교생 대상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 운영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시 관내 고등학생 대상

김원주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1-01-05 16:44



NEAR사무국 전경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NEAR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국제기구 근무 체험 및 외국 전문위원들과의 대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앞으로 대학 진학 등 진로선택에도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작년 7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사무국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기구로서의 NEAR 사무국의 역할과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경험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각국 전문위원과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포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연수 과정은 1월 11일부터 13일, 18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NEAR 사무국에서 진행되며, 참가인원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1회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희망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본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NEA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각국 담당 전문위원, 외국파견 공무원 및 홍보, 사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의 강의에 이어 참가자들의 궁금점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 과정을 개설한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은 "작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수 과정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아 이번에는 고교생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주변 국가들의 정치·역사·사회·문화를 이해하고,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에 창설된 동북아의 독립적이고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며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6개국의 78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은 2005년부터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에 위치하여 사무총장 이하 국가별, 분야별 전문위원과 각국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팀을 이뤄 회원 단체 간 국제교류 및 협력을 6개국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

포항=김원주 기자 kwj8966@

프린트

취소

동북아연합, 사무국 체험·연수과정 운영

✎ 황영우 기자 | ☎ 승인 2021.01.05 19:22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시 지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NEAR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을 개설한다.

이 과정은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국제기구 근무 체험 및 외국 전문위원들과의 대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앞으로 대학 진학 등 진로선택에도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작년 7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사무국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기구로서의 NEAR 사무국의 역할과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경험을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각국 전문위원과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서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각국 담당 전문위원, 외국파견 공무원 및 홍보, 사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의 강의에 이어 참가자들의 궁금점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 과정을 개설한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은 "작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수 과정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아 이번에는 고교생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주변 국가들의 정치·역사·사회·문화를 이해하고,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포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연수 과정은 오는 11일부터 13일, 18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NEAR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참가인원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1회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희망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

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본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NEA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에 창설된 동북아의 독립적이고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6개국의 78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은 2005년부터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에 위치해 사무총장 이하 국가별, 분야별 전문위원과 각국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팀을 이뤄 회원단체 간 국제교류 및 협력을 6개국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

황영우 기자 wingsun86@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북아연합사무국, 포항 고교생 대상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 모집

지난해 대학생 체험 프로그램에 이어...오는 11일 부터

김창우 기자(=포항) | 2021.01.06 11:20:13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NEAR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국제기구 근무 체험 및 외국 전문위원들과의 대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앞으로 대학 진학 등 진로선택에도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 NEAR 사무국 전경 © NEAR 사무국

NEAR 사무국은 지난해 7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사무국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기구로서의 NEAR 사무국의 역할과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경험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각국 전문위원과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포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연수 과정은 오는 11일부터 13일, 18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NEAR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참가인원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1회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희망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본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각국 담당 전문위원, 외국파견 공무원 및 홍보, 사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의 상의에 이어 참가자들의 궁금함에 대해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작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수 과정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아 이번에는 고교생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주변 국가들의 정치·역사·사회·문화를 이해하고,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에 창설된 동북아의 독립적이고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며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6개국의 78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은 2005년부터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에 위치해 사무총장 이하 국가별, 분야별 전문위원과 각국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팀을 이뤄 회원단체 간 국제교류 및 협력을 6개국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

동북아연합(NEAR)사무국, 고교생 사무국 체험. 연수 과정 개설 운영

2021년 01월 06일 [cbn뉴스]



↑↑ NEAR 사무국 전경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NEAR 사무국 체험. 연수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국제기구 근무 체험 및 외국 전문위원들과의 대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앞으로 대학 진학 등 진로선택에도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작년 7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사무국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기구로서의 NEAR 사무국의 역할과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경험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각국 전문위원과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포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 연수 과정은 1월 11일부터 13일, 18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NEAR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참가인원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1회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희망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본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NEA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각국 담당 전문위원, 외국파견 공무원 및 홍보, 사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의 강의에 이어 참가자들의 궁금점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 과정을 개설한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은 “작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수 과정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아 이번에는 고교생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주변 국가들의 정치, 역사, 사회, 문화를 이해하고,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에 창설된 동북아의 독립적이고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며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6개국의 78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은 2005년부터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에 위치하여 사무총장 이하 국가별, 분야별 전문위원과 각국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팀을 이뤄 회원단체 간 국제교류 및 협력을 6개국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iyunkim@daum.net

“ ”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bn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cbn뉴스

위클리서울

HOME > 문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고교생 체험·연수 운영

윤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06 09:16

| 포항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 NEAR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 개설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오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NEAR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포항테크노파크 전경. ©위클리서울 /NEAR 사무국

이 과정은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국제기구 근무 체험 및 외국 전문위원들과의 대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앞으로 대학 진학 등 진로선택에도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NEAR 사무국은 작년 7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사무국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기구로서의 NEAR 사무국의 역할과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경험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각국 전문위원과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포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연수 과정은 1월 11일부터 13일, 18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NEAR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참가인원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1회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희망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본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NEA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각국 담당 전문위원, 외국파견 공무원 및 홍보, 사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의 강의에 이어 참가자들의 궁금점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 과정을 개설한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은 "작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수 과정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아 이번에는 고교생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주변 국가들의 정치·역사·사회·문화를 이해하고,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에 창설된 동북아의 독립적이고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며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6개국의 78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은 2005년부터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에 위치하여 사무총장 이하 국가별, 분야별 전문위원과 각국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팀을 이뤄 회원단체 간 국제교류 및 협력을 6개국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리 기자

포항시 동북아연합(NEAR)사무국, 고교생 대상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 운영 예정

기사입력시간 : 2021/01/05 [23:25:00]

김은하기자

[경북다경뉴스=김은하 기자]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NEAR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 포항시 동북아연합(NEAR)사무국, 고교생 대상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 운영 예정 © 김은하 기자

이 과정은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국제기구 근무 체험 및 외국 전문위원들과의 대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앞으로 대학 진학 등 진로선택에도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작년 7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사무국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기구로서의 NEAR 사무국의 역할과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경험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각국 전문위원과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포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연수 과정은 1월 11일부터 13일, 18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NEAR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참가인원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1회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희망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본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NEA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각국 담당 전문위원, 외국파견 공무원 및 홍보, 사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의 강의에 이어 참가자들의 궁금점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 과정을 개설한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은 “작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수 과정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아 이번에는 고교생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주변 국가들의 정치·역사·사회·문화를 이해하고,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에 창설된 동북아의 독립적이고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며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6개국의 78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은 2005년부터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본부 동 3층에 위치하여 사무총장 이하 국가별, 분야별 전문위원과 각국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팀을 이뤄 회원단체 간 국제교류 및 협력을 6개국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

THE FACT

NEAR 사무국, 포항 고교생 대상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 운영

고등학생들에게 국제기구 근무 체험 및 외국 전문위원들과의 대화 기회제공

입력: 2021.01.06 17:14 / 수정: 2021.01.06 17:14



NEAR 사무국은 포항지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국 체험프로그램 참가자들 모습./NEAR 사무국 제공

고등학생들에게 국제기구 근무 체험 및 외국 전문위원들과의 대화 기회제공

[더팩트 | 포항=김달년 기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NEAR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을 개설한다.

포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연수 과정은 1월 11일부터 13일, 18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NEAR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각국 담당 전문위원, 외국파견 공무원 및 홍보, 사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의 강의에 이어 참가자들의 궁금점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인원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1회 10명 이내로 제한했다. 희망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포항시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국제기구 근무 체험 및 외국 전문위원들과의 대화 기회를 제공해 참가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대학 진학 등 진로선택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NEAR 사무국은 작년 7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사무국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각국 전문위원과의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작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수 과정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아 이번에는 고교생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주변 국가들의 정치·역사·사회·문화를 이해하고,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에 창설된 동북아의 독립적이고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로 사무국은 2005년부터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내에 있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6개국의 78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tktf@tf.co.kr

Copyright©tf.co.kr

동북아연합 사무국, 고교생 대상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 운영

윤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1.05 17:57



사진=포항 ©열린뉴스통신

(포항 =열린뉴스통신) 김덕수 기자 =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NEAR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국제기구 근무 체험 및 외국 전문위원들과의 대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앞으로 대학 진학 등 진로선택에도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NEAR 사무국은 작년 7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사무국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기구로서의 NEAR 사무국의 역할과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경험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각국 전문위원과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포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연수 과정은 1월 11일부터 13일, 18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NEAR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참가인원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1회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희망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본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NEA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각국 담당 전문위원, 외국파견 공무원 및 홍보, 사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의 강의에 이어 참가자들의 궁금점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 과정을 개설한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은 "작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수 과정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아 이번에는 고교생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주변 국가들의 정치·역사·사회·문화를 이해하고,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에 창설된 동북아의 독립적이고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며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6개국의 78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은 2005년부터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에 위치하여 사무총장 이하 국가별, 분야별 전문위원과 각국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팀을 이뤄 회원단체 간 국제 교류 및 협력을 6개국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열린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덕수 기자